

제3주제

정 희 정*

- 1.
- 2.
- 3.
- 4.
- 5.

1.

[illegible]

*

1) 『 』

가, 가 가 가 .
가 6 , 9 , ,
. . , ,
. . ,
. 가 가 가
, 2).
『 (1981, 1983,
1984, 1984, 1984, 1985), 『 (1998), 『 (1997), 『
- -』 (2002), 『 (1990), 『 (1999)
(郡誌) .

2.

3). 가 .
. 가
. < >, < >, < >, <
>, < >, < > , < >, <
> 4) .

2) , “ ”, 1
, 2002, 58 .
3) 『 』 22, , 674 .
4) MBC, 『 』 , .

.
 , , .
 < >, < >5), < >, <
 >, < >, < >, < >
 < >, < > 가 .
 < >, < > ,
 < >, < 가 >, < >, < > ,
 가 < >, < >
 가 . 가 , (數
 謠), (語戲謠) . 가
 가 .

가 < > ‘
 , < >, < 가>
 ‘ , ‘ , ‘ ,
 . , ,
 6).

가 가

. 가
 가 가 .

가 .

7).

5) < > .
 6) “, 『 - 』, 2002.) < > 가 . (, “
 < > 가 . < >
 .(4) .) < > ‘ ,
 , .(, 『
 』, , 1992)
 7) 1 .

가 .

가

8).

가

가

9).

1) 남성 화자의 민요

10)

가

가

가

가

< >

가

8) , 102 .

9) 가

10) (10 40 , 1990, 102 .) 가

큰 애기 젓탱이는 몽싱몽실

잘하고 잘하네

에헤야 산이가 잘하네

<중략>

얼까산이나

얼까산이나

산이가 산이지

얼까산이야

여보시오

얼까산이야

농군님네

얼까산이야

- 금산 <논매는 소리> -

바람불고 비올 줄 알면

어느 여자가 빨래갈까

저 건너 검정구름이 둥글둥글 모이네 에

저 건너 비에서

얼까산이야

비가 들어온다

얼까산이야

- 논산 <논매는 소리> -

< > “ / ”
가 ,
가

가
“ , ” “ ” ‘ ㄹ ’
가 .

< >
가 . 11) ‘ , ‘ ,
‘ , , , , ‘ ,
가 .

11) “ “ , 『 』 , 1992, 92

가

< > < >

이 논배미 모를 심어 장입이 훤히 영화로구나
담송담송 닷마지기 반달만치 남아나 있네
방실방실 웃는 이 저 임은 못 안아 보고서 해가 지네
네가 무슨 반달이더냐 우리 님이 반달이로세
- 금산 <모심는 소리> -

여보시오 농부님네 / 어렵단 말씀 마시구서
향산 기러기 날라간 제로 / 이 배미서 열심히 올러를 가세
이팔시절 젊은 몸이 / 평생토록 농부백이 못하는가
세상살이 살고 보면 / 다 일반이로다
- 공주 <논매는 소리> -

청춘에 하늘은 잔빌도 많안데 / 우리네 살림은 기박도 하셔서
아침 밥만 먹으면 / 호미자락 집어 쥐고서
들판에 나가 땅만 파고 세월을 보내네
원제원제 돈 벌어 가지고 / 남들과 같이 살어나
이랬다 저랬다 한탄을 말고 / 우리 농사에 심들 쓰자
태평양 같이 넓은 논이 / 반달만큼 남았구나
- 아산 <논매는 소리> -

가

가

가

가

가

가

가

가

가

 \wedge \succ

이 터를 닦아보세 / 부귀공명 분명쿠나
 자손 나면 득남하고/ 자손 나면 부귀하고
 삼봉산 밑에 집을 짓고 / 자손만대 살아보세
 아들 낳으면 효자 낳고 / 여자 낳으면 충녀로다
 이 터를 닦게 되면 / 삼년 안에 부귀득이요
 좌견천리 입견 만리 / 명성 높은 터를 닦세
 - 서산 <집터 다지는 소리> -

가

가

가

가

가

2) 여성 화자의 민요

가

가 가

가가

가 가

가

가

가

가

가

가

가

가

가

가

바람은 술술 부는 날 / 옥황님께 죄를 짓고 / 하신 일이 전혀 없어
구름은 둥실 뜨는 날 / 인간으로 귀양와서/ 금사 한필 짜자하고
월궁에 노든 선녀 / 좌우산천 둘러 보니 / 월궁으로 치치 달아
- 서천 <베틀가> -

가 , 가

가

“ < > ”

한 골 매고 두 골 매고 / 이삼세 골 거듬 매니
다른 점심 다나와도 / 이내 점심 아니나와
점심 바래 내가 왔네 / 그것새나 일이라고
때를 타고 시를 타나 / 예라 요년 물러서라
밥이라고 주는 것은 / 삼년 묵은 보리 찬밥
굽이굽이 사발굽이 붙여주네
반찬이라 주는 것은 / 된장찌개 접시굽이 붙여주네
- 부여 <시집살이 노래> -

[illegible]

시집온 지 사흘 만에 / 광단 치마 벗어 놓고 / 행주치마 둘러치고
장주문을 열떠리고 / 대청마루 떼구르고 / 부엌으로 나리 달아
큰 솥 밥을 열어보니 / 청동녹이 앉었는데나 / 광방문을 열떠리고
쌀독이라 열어 보니 / 암거미 줄 서렸데나

< 종 략 >

선 보리는 제쳐 놓고 / 익은 보리 잘라다가 / 삼세번은 볶아 놓고
 쓴 고사리 제쳐 놓고 / 단고사리 꺾어다가 / 끓는 물에 솟구쳐서
 수탉 같은 시아버지 / 암탉 같은 시어머니 / 벌레 같은 시아주머님”
 - 청양군 <시집살이 노래> -

형님 형님 사춘 형님 / 시집살이 어떻든가
 시집살이 말도 말게 / 고추 당추 맵다한들 /시집보다 더 매우리
 시아버님 호랑갈구 / 시어머님 수다쟁이
 남편이라 곱걸구 / 시동생은 미련탱이 / 여우같은 시누이가
 - 대전 <시집살이 노래> -

“ , ” . 가 가
 .
 가
 가 , 가 가
 . 가 ,
 가
 가 “ ” .
 , 가 , , 가
 .
 가 ,
 가
 “ , , ”
 .
 .
 “ ”
 ,
 ,
 ,
 가 ,
 , ,
 ,
 가 ,

12).

한양 가서 사 오신 댕기를 / 두 냥 주고 접어다가
성안에서 그네를 타다 / 성 밖으로 잊었으니
열두 살 먹은 이 도령아 / 내 댕기 주었거든 나를 다오
< 중 략 >

열두 폭 병풍은 네게 지고 / 열두 폭 치마는 내가 입고
너와 나와 단둘이서 / 결혼을 한다면야 너를 주마
영 글렀구나 영 글렀어 / 가마타고 시집가보기는 영 글렀어
- 연기 <댕기 노래> -

천 길 같은 임을 보랴구 / 만길 같은 담을 넘다
도포자락 찢었으니 / 부모가 알면 어이 하리
초당에서 글 읽던 처녀 / 문고리 잡구 하는 말이
대장부 남자로서 / 그 말 한마디 대답 못해
- 홍성 <댕기 노래> -

가

가

가 가

가 가

가

가

12)

가

< 가

>

<

>

가
가

4.

가
가
가
가

5.

가

가

가

가

가

가

가

가

[]

가 - < 가> - , 『
』 , , 1983.
『
』 , 『
』 , 1998.
『
』 , , 1984.
『
』 , 『
』 - , 2002.
『
』 , , 1961.
『
』 1,2,3,4,5,6, , 1981.
『
』 4 7 : , , 1993.
『
』 , 『
』 7,8 , ,1975.
『
』 , , 1992.
『
』 , , 1992.
『
』 , 1994.
MBC, 『
』 , 1995.